

퍼프슬리브 블라우스의 어깨길이와 퍼프량의 變化에 따른 視覺的 效果

具美蘭 · 李貞順*

祥明大學校 디자인學部 衣裳디자인專攻 講師
祥明大學校 디자인學部 衣裳디자인專攻 教授*

The Visual Effects by Variation of the Shoulder Length and Puff Volume in Puff Sleeve Blouse

Koo, Mi-Ran · Lee, Jung-Soon

Lecture, Dept. of Fashion Design, Sangmyu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angmyu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differences of visual effects by variations in the shoulder length and puff volume of the puff sleeve blouse. The stimuli are 21 samples: 3 variations of the shoulder length and 7 variations of the puff volume. The data has been obtained from 40 fashion design majors. The data has analyzed by Frequency, Factor Analysis, ANOVA, Scheffe's test and MCA method. The result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visual effects by the shoulder length and puff volume are composed of 4 factors : the width of the upper body, the shape of the breast part, the shape of the neck part and the shape of the upper arm. In these factors, the width of the upper body is estimated by most important factor. In view of the visual effects by variation of the shoulder length, the shorter shoulder length goes, the more positive visual image comes in the shape of the breast part. In comparison of the differences of visual effects by the 7 variations of puff volume, the arm looks thin and long when the puff volume goes enough and the breast part has a better visual assesment in case the puff volume goes poor. In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shoulder length and puff volume, the shoulder length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hape of the breast part, the shape of the neck part and the shape of the upper arm and puff volume h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width of the upper body.

Key Words : visual effects(시각적효과), shoulder length(어깨길이), puff volume(퍼프량)

Corresponding author; Koo, Mi-Ran, Tel.+82-16-467-0807
E-mail: miho749@empal.com

I. 서 론

인간은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있고 의복은 그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사회는 신체에 입혀짐으로써 완성되는 의복을 통해 사람들의 인상형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고 특히 여성들의 의복은 개개인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가장 큰 수단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의류산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빠른 유행의 흐름에 맞춰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비자의 신체결점을 커버하면서 긍정적인 시각적 효과를 주어 심리적 만족도까지 총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의복, 인체구조가 주는 복식조형에서의 시각적 효과는 착용자의 체형과 의복디자인의 요소가 상호 어우러져 체형의 지각에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신체 디자인 시각효과(physical design visual effect)와 특별한 느낌이나 분위기를 유발시키는 연상디자인 시각효과(associate design visual effect)가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 전자는 의복이 갖는 형태나 색채가 착시현상을 일으킴으로서 의복에 의해 체형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신체적 외모를 원하는 시각적 이상에 가깝도록 조절하여 체형에 잘 조화되는 아름다운 복식미를 창조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연상디자인 시각효과는 의복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심리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쾌감정, 기호성, 연상 등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체의 형태와 의복의 형태, 착용방식 등이 어우러져 체형의 지각에 착시현상을 일으킴으로써 착용자를 돌보 이게 하거나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있으므로 복식조형에서의 시각적 효과의 연구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복과 인체구조의 상호작용에 대한 복식조형의 시각적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스커트나 재킷, 팬츠 등 특정한 아이템으로 하는 시각적 효과의 연구²⁾⁽³⁾⁽⁴⁾⁽⁵⁾와 디자인 형태에 관한 시각적 효과의 연구⁶⁾⁽⁷⁾⁽⁸⁾ 등이 있다. 이러한 시각적 효과 연구의 대부분이 디자인 요소에 의한 연구로 주를 이루고 있으나 체형과 의복과의 조화로 나타나는 시각적 효과의 연구는 구성학적인 측면에서의 패턴디자인에 따른 시

각적 효과 또한 그 영향이 크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로맨틱 패미닌 티⁹⁾의 대표 아이템인 퍼프슬리브 블라우스의 어깨길이와 퍼프량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연구하고자 한다. 퍼프슬리브를 패턴디자인의 측면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인으로 어깨길이와 퍼프량을 선정하여 그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퍼프슬리브 블라우스의 어깨길이와 퍼프량의 변화에 대한 시각적 효과의 구성요인을 알아본다

둘째, 퍼프슬리브 블라우스의 어깨길이 변화에 대한 시각적 효과의 차이를 알아본다.

셋째, 퍼프슬리브 블라우스의 퍼프량의 변화에 대한 시각적 효과의 차이를 알아본다.

넷째, 퍼프슬리브 블라우스의 어깨길이와 퍼프량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본다.

II. 연구방법 및 내용

1 자극물 선정 및 제작

퍼프슬리브는 '부풀린 소매'라는 뜻으로 주로 짧은 소매를 소매달림선이나 소맷단에서 주름잡아 부풀린 소매이다. 디자인에 따라 소맷단 부분을 부풀린 디자인, 소매달림선을 부풀린 디자인, 소매달림선과 소맷단을 부풀린 디자인 등으로 나눈다¹⁰⁾. 퍼프슬리브는 퍼프분과 개더, 턱 등의 분량의 변화로 여러 가지 디자인의 묘미를 살릴 수 있다¹¹⁾. 그리고 어깨의 퍼프를 강조하기 위하여 어깨에 패드를 넣거나 어깨선을 줄여 어깨가 작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¹²⁾. 의복자극물을 제작하기에 앞서 퍼프슬리브 블라우스의 어깨길이와 퍼프량의 설정을 위하여 문헌조사와 패턴사와의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매달림선을 부풀린 디자인으로 한정하고, 소매달림선을 부풀리는 퍼프 슬리브 제도 시 퍼프에 의해 어깨가 넓어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몸판의 어깨길이를 최소 1cm¹³⁾ 줄여주었다. 그리고

최근의 트랜드는 인체의 어깨보다 좁고 몸에 fit되는 실루엣의 영향으로 대략 3cm 정도까지 어깨길이를 수정해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가슴과 허리에 닉트가 들어가는 기본 블라우스의 어깨길이의 변화는 어깨길이-1cm에서 0.5cm씩 변화를 주어 어깨길이-3cm까지 5단계로 하였고 퍼프랑은 트랜드에 따라 최소 3cm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3cm에서 1.5cm씩 더해지는 것으로 21cm 까지 13단계로 정하였다.

기초실험은 퍼프슬리브 블라우스의 어깨길이와 퍼프랑의 변화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추출하기 위하여 '같다-다르다'의 형용사쌍을 이용하여 의상디자인 전공 대학원생 22명을 대상으로 비교평가를 하게 하였다. 그 결과 어깨길이의 변화 3단계(제 어깨길이-1cm, 제 어깨길이-2cm, 제 어깨길이-3cm)와 퍼프랑의 변화 7단계(3cm, 6cm, 9cm, 12cm, 15cm, 18cm, 21cm)가 추출되었다. 기초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실험에 사용된 의복자극물은 어깨길이 변화 3단계와 퍼프랑의 변화 7단계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진 21개의 퍼프슬리브 블라우스이다. 퍼프슬리브 블라우스는 단계별로 제작하여 정자세를 취하고 있는 마네킹에 착용시켜 실험하였다. 그리고 마네킹의 하의로는 기본 타이트 스커트를 의복자극물과 같은 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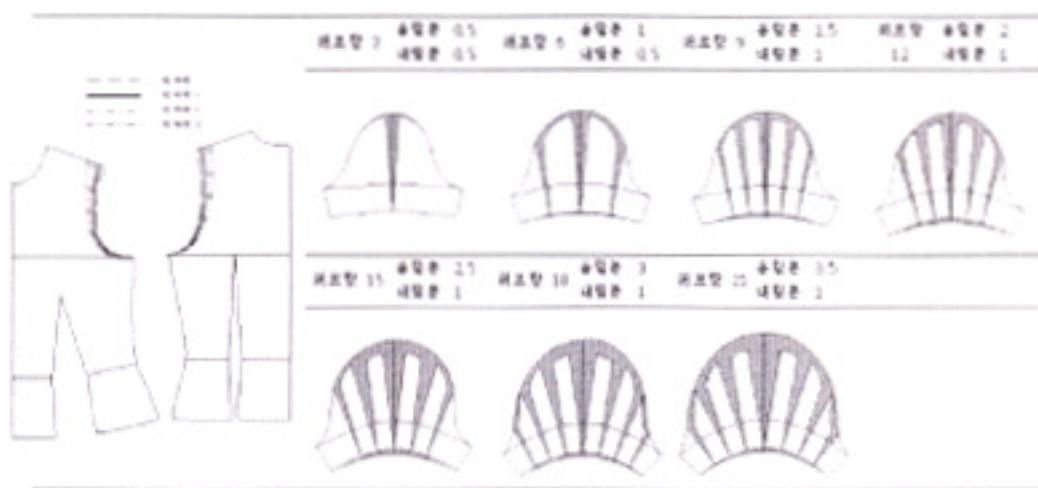
목으로 제작하여 착용시켰다. 실험복의 패턴¹⁴⁾은 <그림 1>과 같다.

2. 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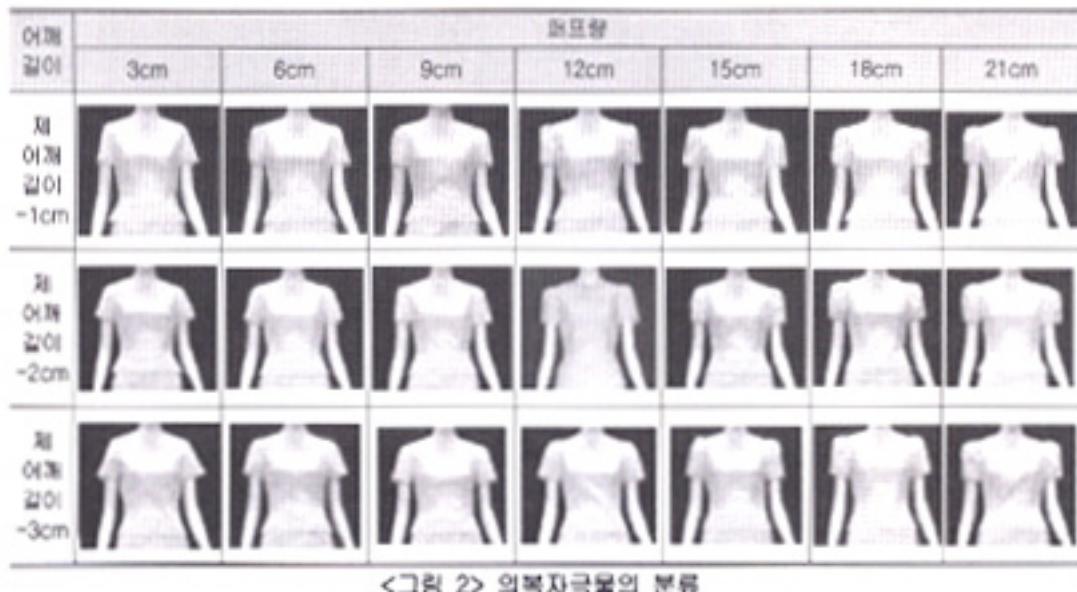
본 연구의 평가자는 상명대학교 의상디자인 전공 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실험은 3단계의 어깨길이와 7단계의 퍼프랑의 2원 요인으로 이루어졌다. 21개의 자극물을 <그림 2>와 같다. 마네킹에 입혀진 상태로 평가자들에게 무순으로 제시하였으며 의복 자극물이 놓여지는 위치의 뒷 배경에는 회색 보드지를 대어 배경색과 자극물의 대비현상을 막아 배경색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의복자극물과 평가자 사이의 거리는 4m로 하였다.

3. 평가척도와 자료분석

퍼프슬리브 블라우스의 어깨길이와 퍼프랑의 변화에 대한 시각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선정은 제시된 의복자극물을 의상디자인 전공자 46명에게 제시하여 자유언어연상법에 의해 신체적 특징의 효과를 나타내는 평가용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평가용어 중에 사용빈도가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추출하고 의미가 유사한 용어는 가능한 제외시켰다.



<그림 1> 퍼프슬리브 블라우스의 패턴



예비실험을 거쳐 총 13쌍의 항목을 선정하여 적합성 여부를 실험하여 최종적으로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평가자들에게 항목들을 무작위로 배치하여 제시하였으며, 7단계 평점법으로 평가 하였으며 자료의 수량화를 위하여 왼쪽 극단에 7점, 오른쪽 극단에 1점을 부여하였다.

실험을 통해 얻어진 자료의 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방법으로 요인분석을 하고 Varimax 방법에 의한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퍼프슬리브 블라우스의 어깨길이와 퍼프량의 변화에 대한 시각적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다. 시각적 효과의 구성요인에 대한 퍼프슬리브 블라우스의 어깨길이와 퍼프량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어깨길이와 퍼프량에 의한 시각적 효과의 구성요인

퍼프슬리브의 어깨길이와 퍼프량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요인 수는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하여 varimax 직교회전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 1이상으로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요인1은 어깨가 좁아보인다 – 어깨가 넓어보인다, 상체가 빈약해 보인다 – 상체가 풍만해보인다, 얼굴이 작아 보인다 – 얼굴이 커 보인다, 숫은 어깨로 보인다 – 처진 어깨로 보인다 등의 평가 용어에서 요인부하치가 높게 나타나 상반신수평요인이라 하였다. 요인2는 가슴이 업(up)되어 보인다 – 가슴이 쳐져 보인다, 가슴이 모아져 보인다 – 가슴이 벌어져 보인다, 가슴이 풍만해 보인다 – 가슴이 빈약해 보인다, 허리가 가늘어 보인다 – 허리가 굵어 보인다 등의 평가 용어에서 요인부하치가 높게 나타나 흉부형태요인이라 하였다. 요인3은 목이 가늘어 보인다 – 목이 굵어 보인다, 목이 길어 보인다 – 목이 짧아 보인다에서 요인부하치가 높게 나타나 경부형태요인이라 하였다. 요인 4는 팔이 가늘어 보인다 – 팔이 굵어 보인다, 팔이 길어 보인다 – 팔이 짧아 보인다, 팔이 편안해 보인다 – 팔이 불편해 보인다에서 요인부하치가 높게 나와 상완형태요인이라 하였다.

<표 1> 어깨길이와 퍼프량에 의한 시각적 효과의 요인분석

평가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 4
어깨가 좁아보인다 - 어깨가 넓어보인다	.748	.146	-.033	.106
상체가 빈약해 보인다- 상체가 풍만해 보인다	.733	-.237	.196	.042
얼굴이 작아 보인다 - 얼굴이 커 보인다	.584	-.023	.499	.149
솟은 어깨로 보인다 - 처진 어깨로 보인다	.558	.057	.334	.096
가슴이 업(up)되어 보인다 - 가슴이 처져 보인다	.074	.823	.095	.071
가슴이 모아져 보인다 - 가슴이 벌어져 보인다	.191	.755	.253	.094
가슴이 풍만해 보인다 - 가슴이 빈약해 보인다	.304	.647	.208	.118
허리가 가늘어 보인다 - 허리가 굵어 보인다	-.212	.349	.318	.122
목이 가늘어 보인다 - 목이 굵어 보인다	-.185	.030	.839	.066
목이 길어 보인다 - 목이 짧아 보인다	.164	.148	.749	-.049
팔이 가늘어 보인다 - 팔이 굵어 보인다	-.233	.030	.032	.839
팔이 길어 보인다 - 팔이 짧아 보인다	.045	.161	.044	.743
팔이 편안해 보인다 - 팔이 불편해 보인다	.119	-.062	.022	.593
회전제곱합	2.060	1.918	1.885	1.704
전체변량의 %	15.844	14.757	14.502	13.105

4개의 요인이 전체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8.2%이고 그 중 상반신수평요인이 전체변량의 15.8%를 차지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2. 어깨길이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

퍼프슬리브의 어깨길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별로 일원변량분석과 Scheffe'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퍼프슬리브의 퍼프량에 대한 어깨길이를 변화시켜 시각적 효과의 차이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퍼프량이 3cm일때 어깨길이변화에 따라 흉부형태요인과 경부형태요인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고, 퍼프량이 6cm일 때는 경부형태요인이, 퍼프량이 9cm일때는 상반신형태요인, 퍼프량이 12cm일 때는 경부형태요인, 상완형태요인, 퍼프량이 15cm일 때는 흉부형태요인, 퍼프량이 18cm일 때는 상반신 수평요인, 흉부형태요인, 퍼프량이 21cm일 때는 흉부 형태요인과 경부형태요인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4개의 요인 중 어깨길이 변화에 따라서는 흉부형태요인과 경부형태요인이 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상반신수평요인이 어깨길이의 변화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것은 퍼프량이 9cm, 18cm일 때로서 퍼프량이 9cm일 때는 어깨길이가 지나치게 짧으면 도리어 어깨가 넓어 보이거나 상체가 커 보이며, 퍼프량이 18cm로 많을 때는 어깨길이가 짧을수록 어깨가 좁아 보이고 솟은어깨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흉부형태요인은 퍼프량이 최소인 3cm의 경우 제어깨길이-1cm와 제어깨길이-3cm가 비슷한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퍼프량이 15cm 이상 일때 제어깨길이-3cm가 가장 가슴이 아름다워 보이고 허리가 가늘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깨는 좁고 퍼프량이 많아 상체를 자연스럽게 부각시켜주면서 허리가 가늘어 보이는 효과로 어깨길이와 퍼프량이 잘 조화되어 시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경부형태요인은 퍼프량이 15cm와 18cm를 제외하고는 퍼프량에 상관없이 제어깨길이-3cm 보다는 제어깨길이-1cm와 제어깨길이-2cm일 때가 목이 가늘고 길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완형태요인은 퍼프량이 12cm일 때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상완형태요인은 어깨길이 변화에 따라 시각적 효과의 차이는 그

다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결과에서 퍼프랑이 작으면서 어깨길이가 지나치게 짧으면 도리어 퍼프랑이 어깨점 부위를 전체적으로 감싸지 못하여 도리어 어깨가 각져 보여서 넓게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퍼프랑이 많을 경우는 어깨길이가 짧을수록 어깨가 좁아 보이고 숏은 어깨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흉부형태는 퍼프랑이 많고 어깨가 좁으면 상체를 자연스럽게 부각시켜주고 허리는 가늘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블라우스의 어깨길이가 지나치게 짧으면 목이 굵고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칼라의 선택에 따라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퍼프랑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

퍼프슬리브의 퍼프랑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별로 일원변량분석과 Scheffe'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퍼프슬리브의 어깨길이에 대한 퍼프랑을 변화시켜 시각적 효과의 차이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제

<표 2> 어깨길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의 차이

퍼프랑	요인	어깨길이변화			F값
		제 어깨길이 - 1cm	제 어깨길이 - 2cm	제 어깨길이 - 3cm	
3cm	상반신수평요인	3.987	4.012	4.068	.243
	흉부형태요인	4.431 (a)	3.800 (b)	4.250 (a)	8.985***
	경부형태요인	4.787 (a)	3.962 (b)	3.950 (b)	7.867**
	상원형태요인	4.325	4.625	4.283	1.219
6cm	상반신수평요인	3.787	4.025	4.231	1.394
	흉부형태요인	4.125	4.362	4.200	1.237
	경부형태요인	4.387 (a)	4.312 (a)	3.762 (b)	4.736*
	상원형태요인	4.225	4.425	4.150	.991
9cm	상반신수평요인	4.162 (a)	3.731 (b)	3.987 (b)	9.765***
	흉부형태요인	4.037	4.168	4.181	.554
	경부형태요인	4.250	4.187	4.237	.054
	상원형태요인	4.291	4.658	4.425	1.677
12cm	상반신수평요인	3.712	3.925	3.862	1.223
	흉부형태요인	4.162	4.356	4.043	2.259
	경부형태요인	4.162 (a, b)	4.475 (a)	3.900 (b)	3.667*
	상원형태요인	3.800 (b)	4.583 (a)	4.700 (a)	11.973***
15cm	상반신수평요인	4.106	4.062	3.587	.945
	흉부형태요인	3.906 (b)	4.293 (a)	4.168 (a, b)	4.024*
	경부형태요인	4.137	4.125	4.487	1.671
	상원형태요인	4.250	4.341	4.550	1.102
18cm	상반신수평요인	3.987 (b)	4.106 (b)	4.037 (a)	8.537**
	흉부형태요인	4.381 (a)	3.931 (b)	4.781 (a)	12.843***
	경부형태요인	4.287	4.512	4.650	.993
	상원형태요인	4.308	4.083	4.650	2.961
21cm	상반신수평요인	3.850	3.675	3.537	1.989
	흉부형태요인	4.087 (b)	4.283 (a, b)	4.562 (a)	3.214*
	경부형태요인	4.437 (a)	4.462 (a)	3.737 (b)	5.838**
	상원형태요인	4.491	4.141	4.408	1.401

* p<.05, ** p<.01, *** p<.001 ab: Scheffe' 사후검증 결과를 나타낸 것임

어깨길이-1cm와 제어깨길이-2cm의 경부형태요인과 제어깨길이-3cm의 상완형태요인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상반신 수평요인은 어깨길이 모두에서 퍼프량의 변화에 따라 시각적 효과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주로 제어깨길이-1cm에서는 퍼프량이 3cm, 9cm, 15cm, 18cm일 때, 그리고 제어깨길이-2cm와 제어깨길이-3cm에서는 퍼프량이 3cm, 6cm, 18cm에서 대체로 상반신 수평요인에 대한 시각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흉부형태요인은 3개의 어깨길이 변화 모두에서 퍼프량의 변화에 따라 시각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제어깨길이-1cm에서는 퍼프량이 3cm, 18cm, 제어깨길이-2cm에서는 퍼프량이 6cm, 12cm, 15cm, 21cm에서, 제어깨길이-3cm에서는 대부분의 퍼프량에서 흉부형태에 관련한 시각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형태요인은 제어깨길이-3cm에서만 퍼프량의 변화에 따라 시각적 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퍼프량이 9cm, 15cm, 18cm에서 시각

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완형태요인은 제어깨길이-1cm와 제어깨길이-2cm는 퍼프량의 변화에 따라 시각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블라우스의 어깨길이가 신체의 어깨길이에 가까우면서 퍼프량이 증가하면 상체가 상대적으로 납작하게 빙약해 보이며 어깨는 퍼프의 볼륨으로 인해 솟은 어깨로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블라우스 어깨길이가 신체 어깨길이와 비슷해 얼굴은 작아보이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퍼프량이 9cm 이상 증가하고 블라우스 어깨길이가 짧아질수록 어깨너비는 좁고 퍼프볼륨은 풍만해짐에 따른 착시효과로 목과 팔의 폭이 좁아보여 목과 팔이 가늘고 길게 보이는 효과가 있으며 슬리브형태의 여유로 인해 팔은 편안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퍼프볼륨이 커질 때는 어깨길이를 제어깨길이-2cm 정도 줄여주어 경부나 상완이 가늘고 길게 보이는 긍정적인 시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표 3> 퍼프량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의 차이

어깨길이	요인	퍼프량의 변화								F값
		3	6	9	12	15	18	21		
제 어 깨 길 이 -1cm	상반신 수평요인	3.987	3.787	4.162	3.712	4.106	3.987	3.850		2.979**
	흉부 형태요인	4.431 (b)	4.125 (b)	4.037 (a)	4.162 (b)	3.906 (b)	4.381 (b)	4.087 (b)		2.704*
	경부 형태요인	4.787	4.387	4.250	4.162	4.137	4.287	4.437		1.768
	상완 형태요인	4.325 (b)	4.225 (b)	4.291 (b)	3.800 (b)	4.250 (b)	4.308 (b)	4.491 (b)		2.260*
제 어 깨 길 이 -2cm	상반신 수평요인	4.012	4.025	3.731	3.925	4.062	4.106	3.675		3.116**
	흉부 형태요인	3.800	4.362 (a)	4.168 (a, b)	4.356 (a)	4.293 (a, b)	3.931 (a, b)	4.281 (a, b)		4.325***
	경부 형태요인	3.962	4.312	4.187	4.475	4.125	4.512	4.462		1.903
	상완 형태요인	4.625	4.425	4.658	4.583	4.341	4.083	4.141		2.621*
제 어 깨 길 이 -3cm	상반신 수평요인	4.068 (a, b)	4.231 (a)	3.987 (a, b)	3.862 (a, b)	3.587 (b)	4.037 (a, b)	3.537 (b)		4.430***
	흉부 형태요인	4.250 (a, b)	4.200 (a, b)	4.181 (b)	4.043 (b)	4.168 (b)	4.781 (a)	4.562 (a, b)		5.074***
	경부 형태요인	3.950 (a, b)	3.762 (b)	4.237 (a, b)	3.900 (a, b)	4.487 (a, b)	4.650 (a)	3.737 (b)		4.512***
	상완 형태요인	4.283	4.150	4.425	4.700	4.550	4.650	4.408		1.335

*p<.05, **p<.01, *** p<.001 ab: Scheffe'사후검증 결과를 나타낸 것임

어깨길이는 짧고 퍼프량이 많을 때 퍼프볼륨의 풍만함으로 인해 너비가 넓어 보여 얼굴의 크기 역시 넓고 커 보이는 반면 어깨길이가 짧아져 어깨폭과 상체폭이 비슷하게 보여 길이효과를 부각시키므로 옥과 팔의 길이가 길고 가늘게 보여 긍정적인 시각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어깨길이와 퍼프량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의 상호작용 효과

퍼프슬리브 블라우스의 어깨길이와 퍼프량의 변화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요인별로 이원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그 결과 4개의 요인이 $p<0.001$ 수준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주 효과에서 어깨길이는 흉부형태요인, 경부형태요인, 상완형태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퍼프량은 상반신수평요인에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의 상반신 수평요인의 상호작용효과에서 퍼프량이 18cm인 경우 제 어깨길이-2cm, 제 어깨길이-3cm로 갈수록 상반신 수평 요인의 시각적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제 어깨길이-1cm인 경우에는 9cm의 퍼프량 일 때 시각적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9cm 퍼프량의 경우 어깨길이가 짧아질수록 상반신 수평요인의 시각적 효과는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퍼프량이 3cm의 경우는 어깨길이의 차이에 따라 상반신 수평요인의 시각적 효과는 비슷하며, 퍼프량이 21cm일 경우는 어깨길이에 따라 상반신 수평 요인의 시각적 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어깨길이와 퍼프량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의 이원변량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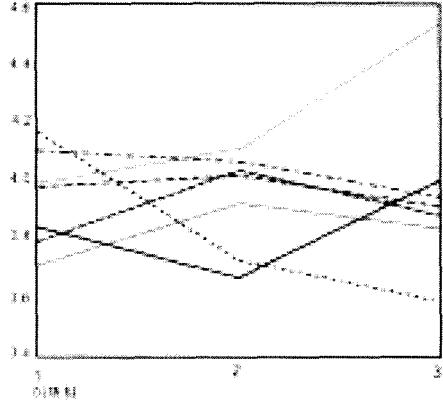
변량원	상반신 수평 요인		흉부 형태 요인		경부 형태 요인		상완 형태 요인	
	평균 자승합	F 값						
어깨길이 (A)	0.0495	.060	4.014	4.005*	9.273	4.388*	6.918	3.731*
퍼프량 (B)	14.100	5.650***	6.151	2.046	8.512	1.343	2.562	.461
상호작용 (A*B)	18.467	3.700***	30.274	5.035***	44.806	3.534***	30.475	2.739***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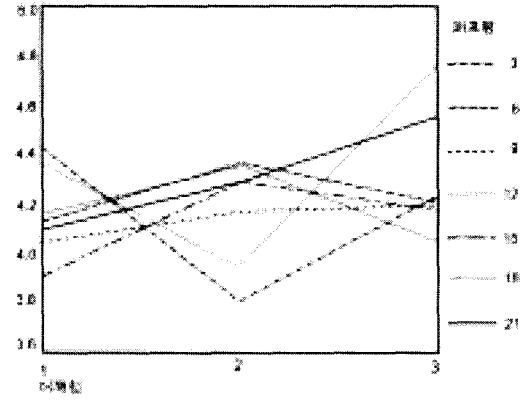
<그림 4>의 흉부형태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면 제어깨길이-3cm일 때 퍼프량 18cm, 21cm가 흉부형태요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그리고 퍼프량 6cm, 12cm, 15cm의 경우 제어깨길이-2cm일 때도 흉부형태요인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퍼프량이 3cm, 18cm인 경우는 어깨길이에 따라 흉부형태요인의 시각적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cm, 21cm의 퍼프량인 경우는 어깨길이가 짧아질수록 흉부형태효과가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의 경부형태요인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퍼프량이 15cm, 18cm일 때 어깨길이가 짧아질수록 경부형태요인의 시각적 효과가 높아지고, 퍼프량이 21cm의 경우는 어깨길이가 더 짧아지면 경부형태의 시각적 효과는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퍼프량이 3cm의 경우는 제어깨길이-1cm는 경부형태의 시각적 효과가 좋으며, 어깨길이가 더 짧아지면 효과는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어깨길이-2cm일 때 가장 좋은 퍼프량은 6cm, 12cm, 18cm, 21cm였으며 퍼프량이 9cm일 경우는 경부의 시각적 효과가 어깨길이와는 상관없이 일관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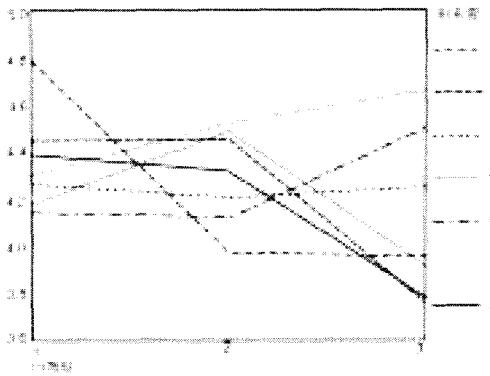
<그림 6>의 상완형태요인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제어깨길이-2cm에서 퍼프량 3cm, 6cm, 12cm일 경우는 가장 긍정적인 평가로, 18cm, 21cm일 경우는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퍼프량이 12cm, 15cm일 때는 어깨길이가 짧아질수록 팔이 날씬해 보이고 길어 보이며 편안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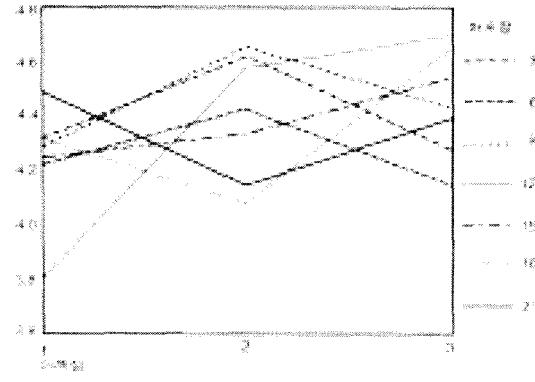
<그림 3> 상반신형태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어깨길이와 퍼프량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4> 흉부형태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어깨길이와 퍼프량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5> 경부형태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어깨길이와 퍼프량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6> 상완형태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어깨길이와 퍼프량의 상호작용효과

IV. 결 론

이 연구는 의복의 시각적 효과를 패턴디자인의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퍼프슬리브의 어깨길이와 퍼프량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의복자극물은 어깨길이 변화 3단계와 퍼프량의 변화 7단계의 2원 요인 설계로 이루어졌다. 퍼프슬리브 블라우스에 대한 13쌍의 평가척도를 구성하여 그 요인구조를 알아보고 어깨길이와 퍼프량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알아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퍼프슬리브 블라우스의 어깨길이와 퍼프량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요인 분석한 결과 상반신수평요인, 흉부형태요인, 경부형태요인, 상완형태요인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2. 퍼프슬리브 블라우스의 어깨길이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알아보면, 상반신수평요인, 흉부형태요인, 경부형태요인, 상완형태요인 중 상반신 수평요인, 흉부형태요인과 경부형태요인이 어깨길이의 변화 중 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퍼프량이 작으면서 어깨길이가 지나치게 짧으면 도리어 퍼프량이 어깨점 부위를 전체적으로 감싸지 못하여 도리어 어깨

가 각져 보여서 넓게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퍼프량이 많을 경우는 어깨길이가 짧을수록 어깨가 좁아 보이고 숏은 어깨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흉부형태는 퍼프량이 많고 어깨가 좁으면 상체를 자연스럽게 부각시켜주고 허리는 가늘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퍼프슬리브 블라우스의 퍼프량을 변화시켜 시각적 효과의 차이를 요인별로 비교하여 보면 제어깨길이-1cm와 제어깨길이-2cm의 경부형태요인과 제어깨길이-3cm의 상완형태요인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상반신수평요인과 흉부형태요인은 어깨길이 모두에서 퍼프량의 변화에 따라 시각적 효과가 다르며, 경부형태요인은 어깨길이가 짧은 경우에 퍼프량에 따라 시각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4. 퍼프슬리브 블라우스의 어깨길이와 퍼프량의 변화에 따른 상호영향력은 4개의 요인 모두에서 어깨길이와 퍼프량에 따라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으며, 주 효과는 어깨길이는 흉부형태요인, 경부형태요인, 상완형태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퍼프량은 상반신수평요인에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신 수평요인은 제어깨길이-1cm인 경우는 9cm의 퍼프량일 때, 그리고 제어깨길이-2cm와 제어깨길이-3cm는 퍼프량이 18cm일 때 가장 시각적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흉부형태요인은 제어깨길이-3cm 일때 퍼프량이 18cm, 21cm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부형태요인은 제어깨길이-1cm에 퍼프량이 3cm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완형태요인은 제어깨길이-2cm에서 퍼프량 3cm, 6cm, 12cm일 경우는 가장 시각적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퍼프슬리브 블라우스의 시각적 효과에서 나타난 요인은 체형의 특징과 퍼프슬리브 패턴에 따라 다르게 평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퍼프 슬리브 패턴을 제작할 때는 어깨길이와 퍼프량을 잘 고려한다면 어깨와 상체의 수평적 형태와 가슴과 허리선의 흉부관련 형태, 그리고 목의 굵기와 길이, 팔의 굵기과 길이 등에 관련한 효과적인 시각적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박순천, 이순홍 (2002), “체형에 적합한 시각효과를 위한 중년남성 정장디자인(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6(11), pp. 1548~1549.
- 2) 이정순 (2005), “기본스커트의 허리선 위치와 라운드 벨트 폭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1), pp. 63~69.
- 3) 한정숙, 류숙희 (1997), “테일러드 자켓 디자인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 - 칼라길이, 단추수, single/double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21(8), pp. 1376~1386.
- 4) 이정진 (2005), “원피스 드레스의 허리밴드 위치와 밴드 폭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평가”,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지영, 이정순 (2005), “베이직 팬츠의 허리선 위치와 라운드 벨트 폭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9(5), pp. 37~50.
- 6) 류정야, 임원자 (1993), “의복 디자인의 선이 체형에 미치는 착시 효과”, *한국의류학회지* 17(3), pp. 475~490.
- 7) 박순천 (2003),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수트 디자인 시각효과에 관한 연구”, *복식* 53(6), pp.131~143.
- 8) 이미정, 이인자 (1994), “의복디자인에 따른 게스탈트 착시효과에 관한 연구”, *복식* 22, pp. 333~344.
- 9) <http://www.samsungdesign.net>, Fashion style news-'우아한 로맨틱 패미닌룩' 부상
- 10) 천종숙, 석은영, 서동애(2005), “새로운 의복구성학”, 동서문화원, pp.132 ~135.
- 11) 小池千枝자, 이효진역(1997), “소매”, 예학사, pp.112 ~124.
- 12) 전은경, 권숙희(2000), “패턴제작의 원리”, 교문사, pp. 147.
- 13) 임원자(1998), “개정판 의복구성학”, 교문사, pp.55~56.
- 14) 나미향, 하동진, 정복희, 이정순, 김정숙 (2003), “산업패턴설계 -여성복 1-”, 교학연구사, p. 116.

(2007년 5월 21일 접수, 2007년 7월 20일 채택)